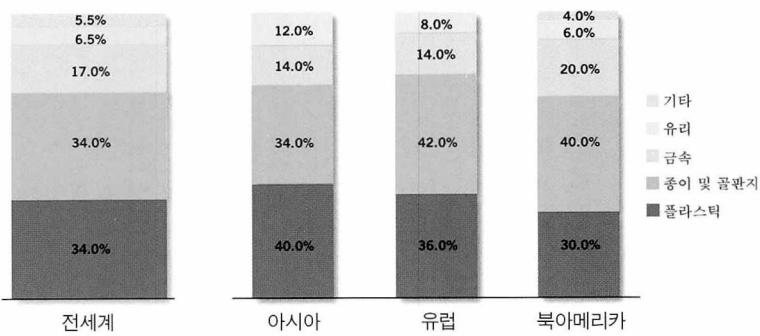




포장산업, 100억 유로의 비즈니스 산업

지역별 및 재료별 시장 점유율(2006년 세계 포장재총생산량 : 5천억달러 이상)



포장은 제품의 생산과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하다. 포장은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고 수송 및 저장 용기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송, 효율적인 상품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준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포장은 구매자의 의견 형성과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.

이처럼 포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포장을 사회의 풍요함의 척도로 보기도 한다. 세계 포장의 70%를 서유럽, 북미 및 일본이 소비하기 때문이다. 달리 말해 세계 인구의 10% 정도가 70%정도의 포장을 소비한다는 뜻이다. 포장의 중요성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알 수 있다. 선진국에서는 이 비중이 1~2%인 반면 개도국이나 신흥 공업국에서는 0.5%에 불과하다.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 사이의 시장 성장 상황도 서로 다르다. 서유럽, 북미 및 일본에서는 연 2% 정도의 비율로 시장이 확장되는 반면 남미, 아시아(일본 제외) 및 아프리카 등의 시장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. 각 시장의 상황, 그리고 포장의 기능, 디자인 및 생산 현황은 다르겠지만 주요 테마와 동향은 비슷하다.

기본적으로, 전세계에 걸쳐 포장재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 친화성, 저장 용이성, 소량 분배 용이성, 재판매성 등 여러 특성에 대한 요구도

커지고 있다. 첨단 기술 포장 쪽으로 가는 동향은 뚜렷하다.

포장재료를 보면, 소비자들은 종이와 골판지를 선호하는 모습이 분명하며 이 두 가지가 37%, 플라스틱이 34%를 차지한다. 그러나 선호도는 지역별로 다르다.

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의 비율은 유럽 또는 북미보다 아시아 쪽이 높다. 첨단 포장 기술 및 새로운 응용 분야가 개발되면서 플라스틱 포장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이, 골판지, 금속, 유리 등은 대체하고 있다.

2006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포장 기계는 약 1억5690만달러로 이중 43.12%가 독일에서부터 수입된 것이며, 그 뒤로 일본 19.53%, 이탈리아 13.85%, 미국 5.59%, 중국 4.96%, 기타 12.95% 등이다.

제과기계 수입액은 총 760만 달러로 일본에서 절반이상(56.90%)을 수입하고 있으며, 독일 20.08%, 스위스 14.16%, 프랑스 2.72%, 이태리 2.25% 기타 3.90% 순이다.

임남숙기자 sang@print.or.kr